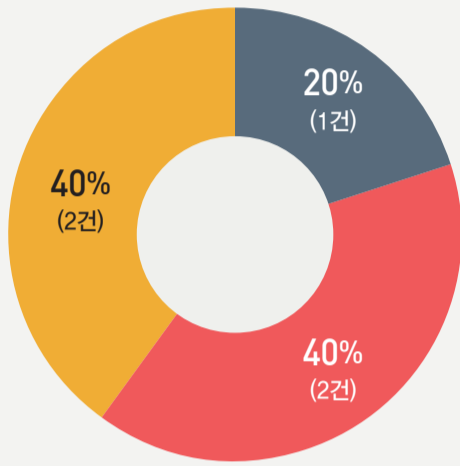


총학생회 '참', 공약 이행은 현재진행형

총학생회 공약 이행 현황



공약 이행 완료도 판단 기준

- 이행 완료** 공약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 부분 이행** 1학기에 공약을 이행했으나, 2학기에 이행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 사업
- 이행 예정** 아직 진행되지 않은 사업



총학생회 '참'(이하 총학)은 작년 11월 총선거에서 핵심 공약으로 ▲ 학생 기본권 보장 ▲트랙제 역사별 문제 해소 ▲매월 정기 학생간담회 개최 ▲학생식당 애플리케이션(이하 학식 앱) 시스템 적용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를 내세웠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총학의 공약 이행 상황과 추후 이행 계획을 알아 봤다.

현재까지 총학이 이행 완료한 공약은 '트랙제 역사별 문제 해소'다. 이는 ▲1트랙·2트랙 수강신청 시간 분리를 통한 우선수강권 보장 ▲수강 트랙에 따른 등록금 차등 납부를 골자로 한다. 실제로 2월에 실시된 수강신청에서 1트랙과 2트랙의

수강신청 시간이 분리됐고, 등록금도 트랙이 속한 단과대학의 등록금을 각각 50%씩 내도록 변경됐다. 예컨대 인문대학 트랙과 공과대학 트랙을 선택했다면, 인문대학 등록금 50%와 공과대학 등록금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등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총학은 '매월 정기 학생간담회 개최' 공약을 이번 학기 내내 꾸준히 이행했으며, 다음 학기에도 계속 이행할 계획이다. 총학은 지난 1월부터 매월 학생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사실상 학생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송진기(기계 4) 총학생회장은 5월 18일 열린 학생간담회에서 "2학기에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학생 기본권 보장' 공약 중 '장바구니 3일 전까지 강의계획서·수강신청 책자 업데이트 완료' 항목은 지난 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이행됐다. 1학기 수강신청 책자가 장바구니 시작일(1월 24일)보다 5일 빠른 1월 19일에 학사공지에 게재된 것이다. 이 공약의 최종 이행 여부는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이 돼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페이스북을 통한 대학본부와의 회의 결과 보고' 항목은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송 회장은 "아직 대학본부와

회의한 적이 없어 올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총학이 앞으로 진행할 공약은 ▲ 학식 앱 시스템 적용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가 있다. '학식 앱 시스템 적용' 공약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학식 메뉴를 식당 밖에서도 주문할 수 있게 만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미뤄졌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대학 본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흡연구역 지정 및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는 "SNS상에서 관련 불만이 제기되면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생

장학팀에 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심원준(IT응용 4) 부총학생회장은 "현재 학생들 사이에서 흡연부스에 대한 불만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총학이 내세운 공약 5가지 중 1가지는 이행이 완료된 상태이고, 2가지는 부분 이행, 2가지는 이행 예정인 상태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지난 학생간담회에서 "아직 총학이 공식 출범한 지 100일이 채 지나지 않았다. 이번 학기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윤희승 기자
yooning@gmail.com

상상력인재학부 정원 이동에 따른 학칙 개정

지난 5월 3일, 학교 홈페이지에 학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 항목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성대학교 학칙 규정집의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에서 별도로 표시하던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학부(과) 표시를 삭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19학년도 상상력인재학부의 야간 입학정원 일부를 주간으로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현(경영기획팀) 담당자는 "현재 특정 트랙에서만 선발하고 있는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은 앞으로 조정될 예정이므로 학칙에서는 관련 표시를 삭제하고 입시요강에 표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학과의 정원 이동에 대해서는 "신입생 모집에 있어서 야간 학생과 주간학생의 학력 차이가 있으므로, 2019학년도부터는 상상력인재학부의 야간 정원을 주간으로 옮겨 더 우수한 인재를 뽑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 2018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에 따르면 한성인재(학생부종합)전형에서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의 학생부 등급은 주간 3.03, 야간 3.96으로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별표 1> 대학별 학과 및 입학정원					
모집단위		정원				모집단위		정원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주간	야간	합계	단과대학	학부(과)	전공	주간	야간	합계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130	113	243	미래융합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부		130	113	243
	글로벌패션산업학부		49	49	98		글로벌패션산업학부		49	49	98
디자인대학	ICT디자인학부		76	20	96	디자인대학	ICT디자인학부		76	20	96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학과*		10	10	20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학과		10	10	20
상상력인재학부			120	218	338	상상력인재학부			240	98	338
합계			838	620	1,458	합계			958	500	1,458

▲변경된 학칙 개정안 일부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수시 전형 전체 평균에서도 주간 전형의 학생부 등급이 야간 전형보다 0.6등급가량 높았다.

정시 입시 결과에서도 주간은 평균 2.8등급, 야간 평균 3.2등급으로 0.4등급의 차이가 발생했다.

기존 상상력인재학부의 입학 정원은 주간 120명, 야간 218명이었으나,

야간 정원의 절반 이상이 주간 정원으로 이동되면서 2019학년도 입학정원은 주간 240명, 야간 98명으로 변경됐다.

상상력인재학부에서만 이러한 정원 이동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김 담당자는 "2016년에 상상관이 완공됐고, 2019년에 행복기숙사가 완공될 예정이라 교사확보율이 증가해

주·야 인원 조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전공별로 인원을 조정하려면 해당 전공 교수와 논의 및 합의를 거치는 등 과정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9학년도 모집부터 변경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전공별로 나눠 논의할 만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전공 구분 없는 상상력인재학부의 인원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상상력인재학부는 특정 단과대학에 소속돼 있지 않으며, 해당 학부 학생들은 전공 구분 없이 입학한 후 자유롭게 전공트랙을 선택할 수 있다. 김 담당자는 "상상력인재학부의 인원을 조정하는 편이 학내 구성원의 반발이 가장 적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원래 상상관이 완공되면 주·야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었으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당시 교육부로부터 2018학년도까지 정원 조정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라며 "행복기숙사가 완공되는 2019학년도가 정원 조정을 실시할 최적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마신 고배를 만회하기 위해 트랙제 도입·새로운 인재상 설정·장학제도 변경 등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변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지면안내

보도

아르바이트생 "일방적 해고" VS 그라씨에 "자발적 퇴사", 양측 주장 엇갈려...

02

사회

일자리 대통령의 지난 1년, 청년고용시대 오나

03

문화

그 어렵다는 셸프 인테리어, 이게 되네?

04

사람사

글 잘 쓰는 예쁜 누나, 창작집단 'SSAK' 임주현 작가

05

제12회 사진공모전

06~07



학술

손톱보다 작은 살인마, '진드기'를 아시나요?

08

오피니언

의회정, 삼학송 등

09

대동제 기획

열기 뽀뽀, 대동제의 문을 Knock Knock

10

지방선거 기획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

11

여행 기획

배(다)랑스 삼총사, '놀'거리-'먹'거리-'볼'거리

12

기자사령

임 부장기자 윤희승(행정 3)

hansungnews



한성대신문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만나보세요



아르바이트생 “일방적 해고” VS 그라찌에 “자발적 퇴사” 양측 주장 엇갈려...

지난 5월 12일,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학내 카페인 '그라찌'와 관련된 게시글이 게재됐다. 본인은 '미래관 그라찌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제보자(이하 A)는 해당 게시글을 통해 '가맹점주(이하 점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19일부터 오는 6월 19일까지 근무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5월 10일, 점주가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근거로 A의 근무시간을 주 5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A는 "사전 합의가 없었던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주 5일 근무가 주 2일 근무로 변경되면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점주가 협의하려고 하지는 않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당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점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하 B)은 A의 주장에

증언을 덧붙였다. B는 "내가 점주의 처사에 항의하자 점주는 'A가 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사장인데 그것도 못하느냐'며 해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B는 "점주가 '한 달 전에 이미 (A를 대체할)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내기도 했다. 학교 근처에는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곳이 많으니 A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금방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A의 해고가 예견된 일이었음을 시사했다.

B는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했다. 그는 "작년 12월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됐다. 그 후에 점주가 근무시간과 시급을 바꿔 계속 근로하게끔 했다"고 말하며 "변동사항을 적용한 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자동으로 근로를 연장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는 "주휴수당 역시 지급받지 못했다. A가 점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

했지만, 점주는 '주휴수당은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라찌에 측은 A와 B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점주는 "A를 해고했다는 소문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출이 저조해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달했다. A가 먼저 일을 그만두겠다고 자발적으로 퇴사했다"고 해고 자체를 부정했다. 이어 그는 "A가 본인(점주)을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건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9일, 고용노동청의 심사 결과 '부당해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고지 받았다"고 덧붙였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서도 그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B의 근로가 연장될 당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마찬가지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하는 액수만큼 기존 임금에 추가해 지급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일인데 A와 B가

이제 와서 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

현재, 그라찌에 본사도 가맹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현 사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성희(그라찌에 본사) 대표이사는 점주에게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되, 만약 아르바이트생과 마찰이 빚어지면 최대한 대화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라찌에와 계약을 체결한 대학본부 역시 이 같은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다. 구자운(총무인사팀) 팀원은 "그라찌에를 비롯해 땀땀한 연구소(팔고당), 밀가우 등 학내 입점 상점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노사 문제와 같은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크게 개입하지 않는 편"이라고 전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한성 #타임라인

상상력교양교육원, 사피엔스데이 개최

지난 5월 25일, 상상력교양교육원이 낙산관 대강당에서 독서토론대회인 '삶과 꿈' 사피엔스데이를 개최했다. 대회 주제는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가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 도출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y=e'팀이 우수상을 수상했고, 'HOT'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팀원 개개인에게 비교과 포인트 80점과 상금 40만 원이, 장려상을 수상한 팀원들에게는 각각 비교과 포인트 60점과 20만 원이 주어졌다. 한편, 본선에 들지 못한 18팀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30점을 부여했다.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된 'HOT'팀과 'y=e'팀은 5월 21일에 모의토론을 벌였고, 25일 본선을 진행했다. 'HOT'팀은 주제 도서 저자의 의견에 찬성했다. 'y=e'팀은 그의 의견에 반대하며, '인간은 사회규범과 규칙, 질서를 따라야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한 측이 입론하면 다른 측이 교차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총 52분간 진행됐으며, 각 팀에게는 8분의 작전타임이 주어졌다.

한편, 황혜성(역사문화학부) 심사위원장은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확장 및 읽기·쓰기·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기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학교 홈페이지 개편, 사용자 의견 반영해

지난 3월, 우리대학 홈페이지가 개편됐다.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한 부분은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이다. 이는 지난 학기 교육혁신지원팀에서 진행한 'High Success Project(학생 주도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학본부는 홈페이지 개편을 주제로 High Success Project를 진행한 'HOH', '한티HSP' 등 팀의 결과 보고서를 검토해 개편 시 일부 수용했다. 개편 시에는 'HOH'가 제안한 '메인 홈에 공지사항 아이콘을 배치해 게시물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메인 홈페이지 중요 알람 아이콘 변경안' 등이 반영됐다. '한티HSP'가 내놓은 '홈페이지 파비콘(브라우저의 주소창에 표시되는 웹사이트 대표 아이콘) 생성안', '화면 이동의 용이함을 위한 스크롤 개선안'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권유경(교육혁신지원팀) 담당자는 "개발자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자가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개발자가 사용자, 특히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명아 기자 mhbt0330@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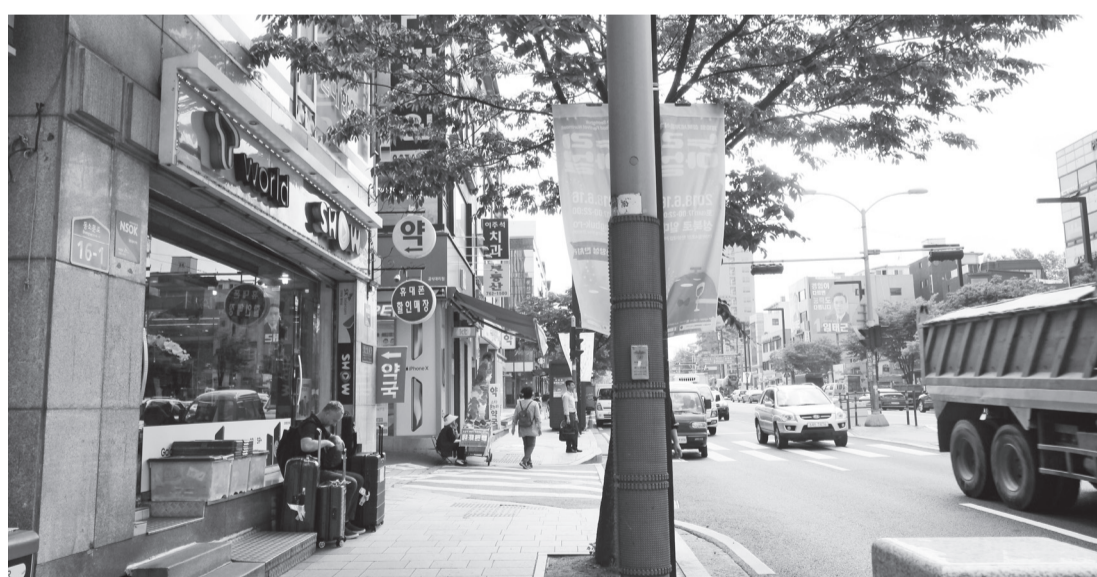
학교 인근 호객행위 기승, 이대로 관참을까?

지난 5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페이스북 '한성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 본교 인근 휴대폰 대리점의 과도한 호객행위에 관한 불만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순식간에 많은 학우들의 공감을 얻으며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로 5월 18일, 삼선시장 쪽에 위치한 문제의 대리점을 찾아 1시간 가량 호객행위 실태를 관찰한 결과, 호객행위를 당한 대상은 총 35명이었다. 그중 여성은 32명으로 전체 호객행위 대상의 91%를 차지했고, 남성은 3명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은 주로 혼자 다니는 여성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했으며,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여성이었다.

이에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학생 제보를 모은 결과, 제보자 모두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에 따르면 한 대리점 직원들은 제보자에게 "필름을 갈고 가라"고 말을 걸었으며, 거부해도 매장 안으로 들어올 것을 강요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휴대폰 전화를 강매하거나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물론 '이성교제 여부, 나이, 사는 곳' 등 개인 정보를 묻는 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제보자는 "직원들이 팔을 붙잡으며 호객행위를 했다. 이어폰을 끼며 호객행위를 거부하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30m를 따라왔다. 불쾌했고



▲KT 본사와 경찰의 권고 조치 이후 조용해진 문제의 대리점 앞

분노가 치밀었다"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한성여고 학생에게서도 제보가 들어왔다. 한성여고에 재학 중인 익명의 제보자는 "한성여고 학생들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학교 측에 말해보려고 한 적도 있다"며 "본인은 고등학생이라 호객행위를 심하게 당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보 내용에 대해 KT 본사는 "확인 결과 대리점 담당자는 '호객행위 시 신체 접촉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진행했다'며 제보 현황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하고 제보가 들어온 만큼 응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대리점에 패널티를 부여하고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KT는 "이번 일로 호객행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면 본사에 신고바란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호객행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8호와 19조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추행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강압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형법」 제208조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최나미(서울성북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는 "호객행위는 현행법상 경찰이

현장 적발에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했을 경우 바로 112에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천문영(서울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 지구대장은 "해당 점주에게 호객행위가 이루어질 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강력 권고 조치했다"며 "순찰 근무 시 해당 매장의 호객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할 것이다. 범법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제13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열려

지난 17일, 낙산관 대강당에서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이 주최하는 '한성인 글쓰기 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 대회에는 우리학교 재학생 총 35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4명, 장려상 5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우수상에게는 상금 50만 원, 우수상에게는 상금 20만 원, 장려상에게는 상금 5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시상식은 6월 14일 오후 2시에 총장실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평화적 통일 방안 ▲개인의 행복 ▲대학 축제 주류 판매 금지 주제를 주제로 치러졌다.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주최측은 "시의성과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를 다루려고 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심사위원이 참가자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된다. 예심, 본심, 최종심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논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표현 능력을 각각 상·중·하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혁(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교수는 "글쓰기 대회는 학생들이 자신의 글쓰기 실력을 점검하고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다. 사회에서는 전공을 불문하고 높은 글쓰기 수준을 요구한다. 이번 대회는 전공지식을 토대로 다양한 지식을 융·복합 형태로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말했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동정란

김선태(회화과) 교수
김 교수는 5월 14일부터 6월 24일까지 청담동 Olivia Park Gallery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공호근(융복합교양교육과정) 교수
공 교수는 지난 5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27회 공인노무사 시험 선정출제위원에 위촉됐다. 또한 공 교수는 지난 5월 28일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형 조직관리방안 연구용역 기술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일자리 대통령의 지난 1년, 청년고용시대 오나

최저임금 인상·중소기업 지원·임금격차 해소 등 노력은 인정 성과는 글썽?

지난 해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지시는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위원회가 16일 출범했다. 또한, 24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관'이 설치되기도 했다. 6월에는 사상 처음 '일자리'에 특화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7월에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이어 10월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도 제시했다. 숨가쁘게 달려온 '일자리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돌아봤다.

1년간 정부는 앞서 설명한 최저임금 16.4% 인상 외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또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역시 증대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현장민생 부문에서는 공무원 수가 3만 5000명 늘어났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1만 8000명이 신규 증원됐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 중 10만 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늘리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가운데 16만 개를 임기 첫 해에 마련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민(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많은 청년에게 소득 증대를 가져다 줬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진행돼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측면도 있으나, 역대 정부보다 발전적인 정책을 추진해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세로 돌아선 점은 고무적"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일자리 대책은 크게 ▲중소기업 지원 ▲계약학과·해외취업 강화 ▲취업에서의 대학 역할 확대로 볼 수 있는데, 이 중 '내일채움공제'로 대표되는 중소기업 임금지원 정책은 취업 준비생의

취업 참여 경로를 대폭 확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김 처장은 "제도의 목적이 근로자의 자산 형성보다는 해당 기업의 숙련된 인력 확보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까지도 기업 단위 지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창업지원 부문은 일자리의 양적 창출보다는 산업 육성 측면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눈에 띄는 변화는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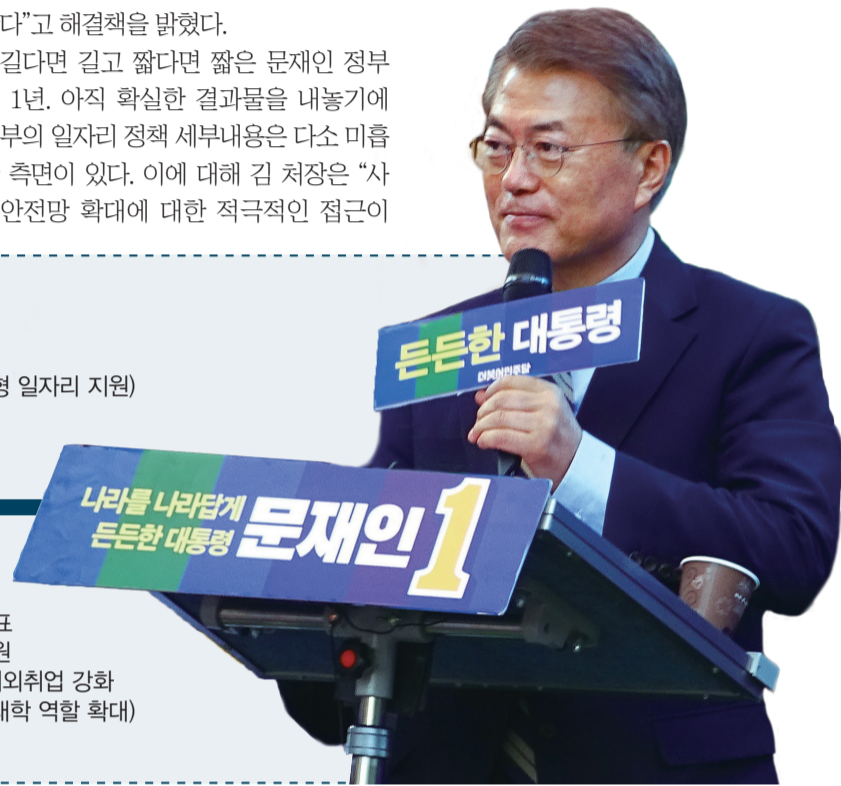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근로시간 감축, 최저임금 상승과 같은 눈에 띄는 정책만 내놓고, 정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기업 간 권력 관계 해소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아직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규직 고용 감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임시직과 일용직의 고용 감소가 눈에 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약간의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고용안정성이 높은 형태로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시직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결책을 밝혔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문재인 정부의 1년. 아직 확실한 결과물을 내놓기에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세부내용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사회안전망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용보험 개혁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의 질적 개선 관련 대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에만 집중돼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 정착과 포괄 임금제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 근절, 직장 내 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실질적인 감독 등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알바 쪼개기, 어쩔 수 없는 선택?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이는 작년 최저임금인 6,470원과 비교했을 때 16.4%나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법규를 피하기 위해 짧은 시간동안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른바 '알바 쪼개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용주들이 '알바 쪼개기'를 하는 데에는 주휴수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1일 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 16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 8시간씩 일하는 직원을 2명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자와 후자의 한 달 인건비는 24만 960원이 차이난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장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하는 것보다

단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2명 고용하는 편이 인건비 부담이 덜하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복수의 단기 알바를 고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현상은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에서 심심치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성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진홍(49) 씨는 "작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4명 고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저시급이 올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3명을 고용하고 주말에는 직접 업무를 본다. 게다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이 주당 15시간 이상씩 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하루 7시간씩 이들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며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의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다 챙겨주려면 인건비 부담이 매우 늘어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편의점 점주뿐만 아니라 수입이 불안정하고 적은 자본으로 일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지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표했다.

장시간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도 곤란한 건 마찬가지다. 현재 카페에서 주당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우리학교 임지영(인문 1) 학생은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일 주일에 12시간을 일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처를 찾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우리학교 김예진(인문 1)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 업무 난이도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고려하는 편이다. 주로 앱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데 요즘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시간 아르바이트가 드물어서 일할 곳을 구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용자, 노동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과연 언제쯤 구직자와 고용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 올까?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법

알바 중 재해, 당황 말고 보상받자

다가오는 방학, 멋지게 해외여행을 떠날 꿈을 꾸며 학기 중에도 열심히 일하던 김한성 씨. 그러던 중 "아야!" 실수로 뜨거운 튀김기에 데어 심한 화상을 입고 말았다.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 치료는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김 씨에게 3주간 입원을 권유했다. 기껏 모은 월급을 몽땅 치료비로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상해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그는 과연 점주로부터 치료비를 보상 받고 계획대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해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주는 것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 접수를 위해서는 우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병원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 대상이어야 한다. 산재보험으로 승인이 되더라도 진료비 영수증에 요양급여 항목이 분류돼 있지 않으면 해당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없다.

김 씨의 경우, 업무 중 입은 심한 화상으로 인해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병원비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 위 두 조건이 만족됐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 서비스를 신청하던 김 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김 씨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와 관련해 최다에(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접수가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팩스를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평균 7일간의 심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 처리 가능 여부와 보험급여가 결정된다. 김 담당자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통해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김 씨는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입원해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는 휴업급여를 신청해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계기로 고용보험법에 대해 잘 알게 된 김 씨는 편안한 마음으로 방학을 기다릴 수 있게 됐다.

박금영 기자
rma0418@hansung.ac.kr





그 어려운 셀프 인테리어, 이게 되네!



이른 아침, 눈을 비비고 일어나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찢어진 벽지와 칙칙한 방안에 제멋대로 놓고 있는 가구들……. 자취를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이홈’에 대한 환상은 무너진 지 오래고, 남아있는 것은 기본적인 가구만 겨우 갖춘 쪽방 한 칸 뿐이다. ‘돈을 들여 인테리어라도 해볼까’ 생각한 적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현실에 이내 단념해야만 했다. 가구 값은 고사하고, 인테리어 업체라도 부르려 하면 5평짜리 원룸이라도 100만 원은 우습게 든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셀프 인테리어뿐이다. 타고난 재주나 재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비법을 두 명의 전문가에게 전수 받았다.

셀프 인테리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취향이다. 취향을 아는 것은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취향을 찾는 데에는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학교 이주형(ICT디자인학부 VMD·전시디자인 트랙) 교수는 “자신의 취향을 찾기 위해서는 인테리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카페에서 조명이나 책상 하나를 보더라도 이것이 자신의 공간과 어울릴지 상상해보는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이 끝나면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의 인테리어 사진을 모으고, 자신의 공간에 대입해 보자.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취향도 살리고 공간에도 적합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간 면적도 취향에 맞지않게 매우 중요하다.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구, 소품 등 필요한 자재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예경 홈스타일링 디자이너는 “면적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인테리어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인테리어 용품을 과하거나 부족하게 구매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확한 면적까지 파악했다면 셀프 인테리어를 위한 기초 계획은 마련된 셈이다. 다음 순서는 인테리어 재료를 고르는 것이다. 재료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 선택해야 하는데, 같은 종류의 재료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니 잘 알아보고 구매해야 한다. 인테리어 재료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을지로나 청계천 부근에 즐비한 인테리어 관련 상가에 방문해 도움을 받자.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방산시장이나 을지로 자재상가에 가면 저렴하고 다양한 인테리어 재료를 구할 수 있다. 이곳에 방문해 직접 재료를 살펴보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료를 선택하고 세부계획도 세웠다면, 본격적으로 인테리어를 시작할 차례다. 단, 자취생의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도록 하자. 계약 만료 시 귀찮은



이런 걸 쓰면 됩니다



(사진 제공 : 이예경 홈스타일링 디자이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는 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가구와 소품 등을 먼저 구매하고 도배나 페인팅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롭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구나 소품 배치를 잘했다더라도 벽에 얼룩이 묻어있으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도배나 페인팅을 통해 전체적인 디자인 방향을 잡은 후 가구와 소품을 마련하는 것이 인테리어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물론, 초심자가 도배와 페인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깔끔하게 시행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한 데다 페인팅 후에 남아있는 냄새를 빼는 것도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페인팅에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페인팅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풀바른벽지’를 추천한다. 이 벽지는 일정한 길이로 재단돼 접착제가 칠해진 상태로 배송된다. 따라서 셀프 인테리어를 처음 하는 사람도 쉽게 도배를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인테리어 상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길 바란다.

이 디자이너는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인테리어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있고 틈틈이 공부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작업을 끝내다보면 지치기 쉬우니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천천히 작업하라”고 덧붙였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네? 제가요? 페인팅을요?



셀프 인테리어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한 당신. ‘풀바른벽지’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고 나니 집안의 분위기가 한껏 살아났다. 하지만 풀바른벽지는 패턴이 비교적 단순해서, 이대로는 밋밋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무언가 색다른 모습을

더할 수는 없을까? 지금부터 한층 업그레이드된 셀프 인테리어의 세계로 떠나보자. 사실 이쯤 되면 ‘좋은 인테리어란 무엇일까?’ 의문이 들 법도 한데, 이에 대해 이주형 교수는 “좋은 인테리어는 공간을 가구로 채우는 것이 아닌, 깔끔한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다고 가정해보자. 커피잔 위로 문득 카페 조명이 비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련된 감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변에 휴지, 가방, 안경 등이 잡다하게 놓여 있다면, 과연 우리는 같은 커피잔에서 동일한 감상을 느낄 수 있을까?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다. 집안 전체에 화려한 가구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여백을 확보한 상태에서 특정 지점에 포인트를 주어야 훨씬 보기가 좋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예경 디자이너는 페인팅을 추천한다. 그녀는 “페인트는 다른 인테리어 용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벽은 물론이고 가구, 문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색상도 다채로워서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 페인팅의 장점을 어필했다.

페인팅을 할 때도 몇 가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보양작업’, ‘샌딩’이 바로 그것이다. 보양작업은 페인트가 묻지 말아야 할 콘센트, 손잡이 등에 테이프를 붙여 페인트가 닿는 것을 예방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을 꼼꼼히 할수록 페인팅 후에 정리하기가 편하다. 샌딩은 일종의 사포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작업의 여부에 따라 페인트의 접착력이 달라진다. 페인트가 오래 지속되길 원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숙지해야 할 또 하나는 페인팅할 벽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벽이 갈라지고 구멍이 났는지, 벽지가 찢어져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작업과 사용도구가 달라진다.

벽에 균열이나 구멍이 있으면 ‘피티’라는 페인팅 도구를 사용해 구멍을 메꾸고 샌딩을 해야 한다. 피티를 바르고 샌딩을 하지 않은 상태로 페인팅을 하면 피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오히려 벽이 흉측해질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피티가 완전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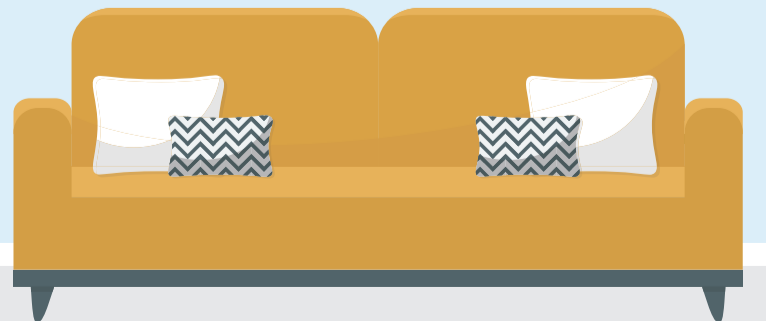
마른 후 샌딩을 하고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부분이 갈라져 한 번 더 페인팅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실크 재질의 벽지는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어, 페인트 밀착력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젯소리’라는 용액을 바르고 페인팅을 하면 밀착력이 강해져 페인트칠이 잘되고 유지도 오래된다.

셀프 인테리어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대부분 조명 욕심을 내게 되는데, 전기시공이 필요한 인테리어만큼은 선불리 도전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인테리어를 할 때는 뒤통수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서 전기 제품을 직접 만지다가 화재를 내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전기 시공비는 1만 원 수준이니 안전을 위해 전문가에게 맡기길 권한다”고 조언했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글 잘 쓰는 예쁜 누나, 창작집단 'SSAK' 임주현 작가



흔히 인생을 두고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대비하고 싶어한다. 공무원 시험 응시 인원이 매년 사상 최다를 돌파하는 요즘, 예측불가능한 청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예측할 수 없는 분야에 투신하고, 알 수 없는 인연에 이끌려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젊은 예술가는 있다. 우리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창작집단 'SSAK'에서 희곡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임주현 작가(30)를 소개한다.

“행정학 시간에 전공 공부를 하기보다는 소설책을 많이 읽었어요. 게다가 우리

학교는 도서관이 잘 돼있잖아요. 도서관에서 책을 엄청 많이 빌려 읽었어요. 학교 공부 너무 재미없어서요(웃음)”

임 작가는 우리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전공 공부는 그에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런 그의 생활에 전환점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한성대신문>이 주최한 '한성문학상'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쓴 단편소설이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걱정을 뒤로 한 채 창작의 세계로 뛰어 들었다. 그런데 소설을 쓰며 소설가를 꿈꾸던 임 작가는 어떻게 희곡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혼자 소설을 쓰다가 지인의 소개로 교육극의 대본을 쓰게 됐어요. 그때 쌓은 인맥 덕분에 계속해서 연극 각본을 쓰게 됐는데, 작업이 생각보다 흥미로워서 자연스럽게 희곡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듬해에는 서울연극센터에서 주최하는 '플레이업 아카데미'에도 참여했어요. 희곡 작가 6명을 뽑아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어요.”

하지만 임 작가가 직면한 과제는 한둘이 아니었다. 비전공자라는 점,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한다는 점 등 현실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작가로서 해야 할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한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문예체를 쓰는 소설과 희곡은 완전히 다른 장르이다 보니 모든 게 생소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연극 대본을 쓰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작업하면서 여러 작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언급하는 유명한 작가와 작품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작가를, 작품을 메모한 후에 도서관에 가서 다 읽어보고 그랬어요.”

임 작가는 남들보다 출발이 늦은 만큼 더 치열하게 노력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도서관이 문을 닫기 전까지 계속 책장을 넘긴 덕분에, 이제는 고전까지 섭렵하게

됐지만, 그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자신을 낮췄다.

“이제 4년차인데 제 생각에 아직 뚜렷한 작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아니거든요. 제가 쓴 작품이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안 서는 경우가 많아요. 뚜렷한 작가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는 재미있게 향유할 수 있는 작품도 좋지만, 더 나아가 관객들에게 계속해서 생각할 거리를 주는 깊이있는 작품을 쓰고 싶다고 했다. 연극이 끝난 뒤에도 관객에게 긴 여운을 주고 싶은 뜻이다.

“저는 사실 판타지 소재를 가져와 현실에 반영하는 것을 선호해요. 제가 썼던 <청년, 카펫블루시대>, <안락의 정원>은 모두 판타지에서 소재를 가져왔어요. 현실에 없는 소재라 머릿속에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주제가 깊어질수록 해설 때도 많아요. 연극 무대에 올리려면 극 중 배경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상한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각본 작업을 하고 있는 <여전사의 섬>이 끝나면 아쉬움이 남는 작품들을 모아 다시 다듬어볼 생각이예요. 어차피 연극은 계속해서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르니까요.”

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주현 작가의 노트와 연극 대본

문자, 그녀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작가가 되길 바라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바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예요. 굉장히 슬퍼서 읽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한강 작가의 미문(美文)에 빠져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추천 이유예요”라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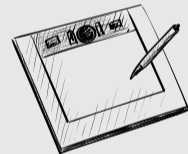
임 작가는 먼 미래에 장편소설을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차적인 목표는 계속 글을 쓰면서 여전한 희곡작가로 인정받는 것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장편소설을 꼭 출판하고 싶어요.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소설'이라서인지 그 끈을 완전히 놓고 싶지 않아요.”

먼 훗날 임주현 작가의 장편소설이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장면을 상상해 본다.

심상우 기자
sangwoo6531@naver.com

어제의 꿈을 내일의 현실로 그려내다, 일러스트 작가 이시우



SNS 타임라인에서 '감성 일러스트'나 '감성 글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현실에 치인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듯한 그림과 글귀를 보여 지친 자신을 위로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 주는 것보다, 같은 상처를 내보이며 '공감의 약속'을 청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되기도 한다. 바로 여기,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가졌을 법한 상처를 그려 '현실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작가가 있다. 일러스트 작가 이시우 씨다.

뜻밖의 길로 들어서다

그의 꿈이 처음부터 일러스트 작가는 아니었다. 사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마음 한 켠에 '광고제작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인터넷 서핑을 통해 우연히 접한 인쇄 광고에 매료되었기 때문이다.

“단 한 컷으로 제작자의 의도를 드러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인쇄광고는 제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나도 이런 광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하지만 그때는 막연히 '되고 싶다고 생각했을 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작가는 우리학교 의생활학부에 입학했다. 전공수업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프로그램을 접한 그는 이내 흥미를 느꼈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독학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했다. 이렇게 취미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일러스트 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

그렇게 완성된 그림이 베타이가 밧줄이 되어 목을 조르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와 허 끝에 목을 매고 죽어있는 사람그린 <해에 목을 맨 사람>이다. 두 작품 모두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며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해에 목을 맨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큰 화제가 되어 이 작가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공공디자인의 세계에 발을 들이다

혹시 성북구 일대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정지선'을 본 적이 있는가? 이는 이 작가가 팀장으로 있던 '00ptical(공공옵티컬)'이 활동한 결과물이다. 성북구청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정지선'을 본 사람의 70%가 스마트폰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이 작품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스마트폰 정지선' 다음에 작업한 '점자블록 실종 진단지'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문제를 재고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디자인물을 설치해 보자는 목표로 시작한 팀 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는지도 알게 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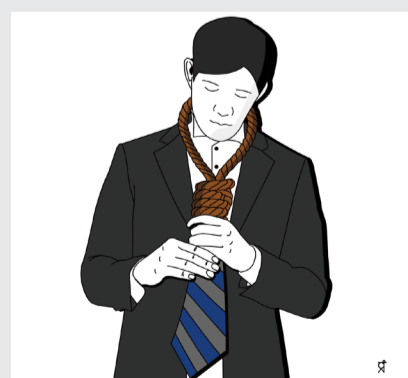
실무 경험이 없는 그는 어떤 방식으로 기획안을 작성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그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공부해야 할 것이 더 많다고 느껴 얼마 전에 팀을 나왔어요”

현재 이 작가는 일러스트 작업뿐 아니라 광고제작자가 되기 위한 준비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금처럼 작가활동도 하고 싶고, 캐릭터디자인 업무도 해보고 싶어요. 팀에서 하던 디자인 활동도 계속 하고 싶고요. 광고제작자 말고도 해보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래도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광고제작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예요.”

그는 광고만큼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것 같으며 지금까지 해온 모든 작업은



▲이시우 작가의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광고제작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꿈 많은 일러스트 작가 이시우 씨를 10년 뒤 내일, 광고제작자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명아 기자
mhbtd0330@naver.com

DO NOT TOUCH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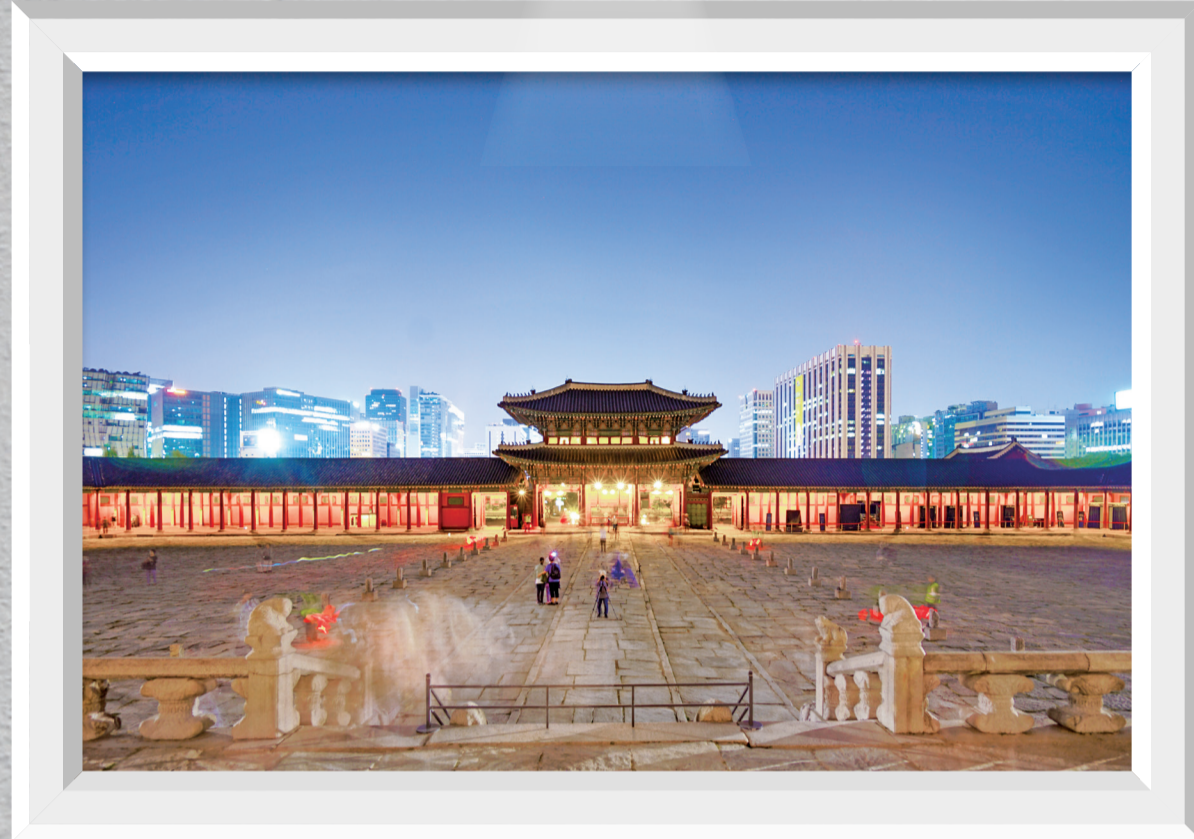
찾으면 여기로 연락주세요
☎ : facebook.com/00ptical

Project 후원 : 이 번단지는 특강단체 인문과는 관계없이 사단법인인 관공회 운영을 위해 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점자블록 실종 진단지

한성대신문 제12회

사진공모전



光化門의 밤

이오성(산공 3)



최우수

수상소감

순간을 영원으로 남긴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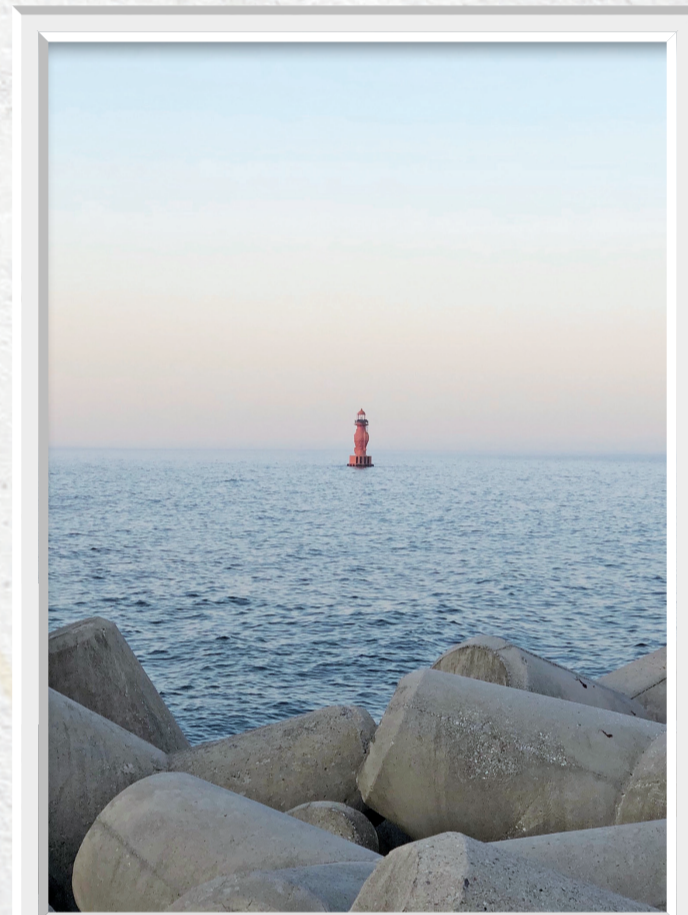
사진이라는 취미를 갖게 되고 열심히 나의 주변을 기록한지도 어느덧 2년을 꽤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다양한 노력 속에서도 명확한 주제의식이나, 제가 남긴 작품에 대한 어떠한 피드백도 없이 방향성을 잃어가던 중에 큰 기대 없이 공모한 사진이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니 아직도 잘 믿기지 않습니다. 우선,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학교와 주최부서인 한성대신문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15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경에 입대하고, 휴가 때마다 가장 깊은 인연이었던 대학교 학우들과 만나기 위해 자주 찾은 장소가 바로 인사동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종로 부근이었습니다. 때때로 약속 시간 한참 전에 도착하여 주변을 둘러보곤 하였는데, 그곳에서 중·장년의 어르신 사진가들이 항상 집중하여 풍경을 담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열중하시던 한 분에게 매료되어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그 분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마디는 바로 "무심코 보내게 될 순간을 영원으로 기록하는 중이다"였습니다. 마음을 울린 바로 그 한 마디로 인해 군 생활 내내 조금씩 모은 월급으로 사진기를 샀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 속 순간의 아름다움을 지속시키려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수상한 사진은 전역 후 100일 정도 지났을 즈음, 경북공 야간 개정을 마치고 흥례문에서 촬영한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사진의 중앙을 흰으로 가로지르는 광화문을 기점으로 위에서는 현대화된 도시의 아름다움을, 아래쪽에는 경북궁이라는 옛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았습니다.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의 대비를 통하여 '다르지만 하나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취미로 시작했던 기록에 최우수상이라는 과분한 영광을 안겨준 학교와 한성대신문사에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소감문을 쓰는 이 순간을 포함해 서터를 누르던 2017년 가을 경북공 안에서의 순간까지, 이 찰나들은 그야말로, 분명히 '영원'으로 아름답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작품들"



accidently-1

나윤성(회화 3)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풍경
최희원(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1)



만남: 구름과 산

문지영(영어영문 4)



佳作

수상소감

나만의 작품을 만든다는 것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17학번 최성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이러한 상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사진을 찍기 시작한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 카메라를 다루기 시작한지는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을 받게 되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진에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다 보니 점점 다른 사람 사진과 비슷해져 가는 느낌이 들게 되었고, 점점 의무적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통해 여러 가지 사진의 기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도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 같은 것을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올해 사진공모전의 광고를 보게 되었고 공모전에 사진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진을 제출한 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오시고, 저보다 더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을 받게 되면서 제 사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장비에 대한 욕심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 중 처음으로 촬영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연출한 사진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사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佳作로 선정된 이번 사진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은 사진이고, 이 도움이 없었다면 제 자신이 이번에佳作로 선정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데 도움을 주신 국문과 정윤성 선배님과 17학번 이수현, 17학번 정영아 학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기다림

최성훈(인문 2)

심사평



심사위원 정두원

경력

대한민국 사진대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서울특별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 심사위원
한국사진 40년사 · 50년사 편찬위원(역임)
서울특별시 사진작가협회 회장(역임)
대한민국호국미술대전 운영위원(역임)

수상경력

제23회 대한민국 사진대전 대상 수상
제1회 서울특별시 사진대전 대상 수상
한국사진문화상 작품상 수상

아름다움은 어디에나 있다

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세계는 미래경제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예언했던 것보다 세상을 더욱 놀라게 바꾸어놓았습니다. 요즘 발달하고 있는 스마트 영상기기(드론)들은 우리들의 취미욕 충족에 많은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누구나 사진을 쉽게 찍고 디지털 영상으로 결합하여 사진(메이킹포토)을 만드는 일은 참 흥미롭고 재미가 있습니다.

제12회 사진공모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신 <한성대신문>에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 공모전에 참여한, 사진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 수상자로 선택되신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91점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이 중 본 심사위원은 주최 측 공모전 요강에 따라 최우수상 1점과佳作 1점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각 작품의 창작 의도, 기록사진의 예술성, 사진의 디자인적 미학, 사진표현의 완성도 등을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심사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光化門의 밤>을 출품한 이오성 학생(산공 3)이 선정되었습니다. 작품은 고궁 내에서 남다른 구도로 촬영하여 우리의 고궁 건축미와 도심의 현대적 건축물(빌딩)을 조화롭게 담아냈습니다. 야경사진의 디테일을 세부적 묘사로 잘 표현해 수작으로 평가했습니다.

경복궁 사진은 주로 정면을 향해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오성 학생은 고궁 안쪽에서 도심을 향해 새로운 구상으로 촬영하여, 출품자의 작가성을 느끼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佳作는 <기다림>을 출품한 최성훈 학생(인문 2)으로, 다류적 현장감으로 주제의 분위기를 잘 표현했기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진 색상이 너무 어둡게 처리되었으나, 이는 인화 과정에서 좀 더 밝게 프린트 가능

함을 짐작했습니다.

전체 작품 중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작품들이 많으나, 공모요강의 제한된 작품 숫자 관계로 모두 선정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중 특히 안타깝게 낙선한 세 분의 작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풍경>을 출품한 최희원 학생(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1)의 작품은 디자인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안정적 구도(황금비)로 담아냈고, 사진미학으로도 잘 묘사된 작품이었습니다.

2. 나윤성 학생(회화 3)의 <accidently-1>에 나타난 바다의 등대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이 망망대해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인내가 있는 수평선의 아슬라함에 있어 놓아주는 분위기를 잘 연출한 작품입니다.

3. <만남: 구름과 산>을 출품한 문지영 학생(영어영문 4)이 출품한 작품은 대각선의 언덕에서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입체감으로 구름이 있는 풍광을 느끼게 한 작품입니다.

이번에 출품한 모든 작품은 우리의 일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순수한 시선 등 다양한 표현들이 카메라에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시선이 먼저 집중되는 주제 중심의 사진들이 다소 부족하고, 사진 작화에서 선예도가 떨어진 작품이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정된 작품 선정으로 선택되지 못한 참가자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신 <한성대신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한성대학교와 지역 사진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손톱보다 작은 살인마, '진드기'를 아시나요?

최근 우리는 인터넷과 신문, TV와 같은 매체를 접할 때마다, '살인'이라는 살벌한 수식어를 접하게 된다. 이전에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살인 가슴기' 사건이나, 최근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준 라돈 '살인 침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앞에 '살인'을 붙일 수 있는 대상은 비단 가슴기나 침대처럼 우리의 눈에 명확히 들어오는 사물만이 아니다.

진정한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법. 길을 거닐 때 우연히 스친 수풀에서 달라붙은 손톱보다 작은 어떤 것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 가려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위험 '살인 진드기'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는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이하 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제주에 거주하는 K 씨(남자, 만 41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풀숲 등에서 야외 활동을 했고, 4월 5일 발열, 설사,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SFTS가 의심돼 4월 9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일에는 충청남도에서 한 여성이 살인 진드기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 '작은 소피참진드기'는 주로 산 인근 밭이나, 주거지 주변 수풀, 우거진 숲, 정비되지 않은 산길에 주로 서식한다. 이때, 사람이 수풀에 접촉하게 되면 참진드기가 몸에 달라붙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진드기 중에 플레보바이러스(Phlebovirus)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하게 되면, SFTS가 발병하게 된다.

주로 4~11월에 발생하는 SFTS는 잠복기를 가진 다른 질환과 비슷하게, 병원체에 노출되면 바로 증상을 유발하지 않고 약 5~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진다. 잠복기가 지나면 감염자는 고열(38~40℃)과 오심(메스꺼움),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의 소화기 질병과 혈소판 감소를 겪게 된다. 증상이 발생한 5일 후에는 다발성장기부전, 신경학적 증상,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현재까지 SFTS를 치료할 마땅한 백신이나 표적치료제는 없다. 이 때문에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면역글로블린, 혈장교환술 등 임시방편의 치료를 행하는 것이 고작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야외활동 후 SFTS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는 것이다. SFTS는 2013년 이후 감염된 환자 625명 중 134명을 사망하게 한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이는 치사율 21.4%에 이르는 수치다. 또, 이 병은 감염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욱 치명적이다.

이에 대해 서충원(질병관리본부 감염병감시과) 역학조사관은 "올해 확인된 환자는 총 1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명이나 증가했다. 더불어 금년 4~5월에는 지난 3년 평균 대비 참진드기 발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6월에도 지속적으로 참진드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SFTS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진드기는 '작은소피참진드기'만이 아니다. 국내에서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 중 대표적인 것은 '쯔쯔가무시증'과 '라임병'이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균(Orientiatsutsugamushi)을 보유한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된다. 급성 열병인 쯔쯔가무시증은 매년 1만 명 정도 감염되고 있고, 전체 환자의 90% 정도가 10~11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을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전신에 바이러스가 퍼져 두통, 흥분, 기억장애 등을 수반하는 '라임병'은 보렐리아속균(Borrelia burgdorferi)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리면 발병한다. 이 병은 미국, 유럽 등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해외여행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SFTS,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등 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야외활동과 농업작업을 할 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서 조사관은 "모자, 긴팔, 긴 바지, 목수건, 토시, 목이 긴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바지 단을 양말 안쪽으로 넣어 입고 되도록 장화나 등산화를 신어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다"며 "보조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야외활동 후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 몸에 진드기가 있는지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진드기의 대부분은 신체에 달라붙는 순간 피부에 단단히 고정돼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동안 흡혈한다. 진드기에 물렸을 때 손으로 무리하게 떼어내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의 도구로 깔끔히 제거하는 편이 안전하다. 진드기를 제거한 후에는 해당 부위를 소독해야 하는데, 되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받기를 권한다.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찌개 거품, 아직도 거뭇?

윤 기자는 수업이 끝나고 친구 이 씨와 함께 학생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늘의 메뉴는 된장찌개! 하지만 윤 기자가 숟가락으로 국물을 뜨는 순간, 친구가 "잠깐! 거품을 걷어내고 먹어야지"라고 외치는 것이 아닌가? 이 발상 자체가 낯선 윤 기자는 그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친구에게 그 이유를 묻자, 그는 "거품이 몸에 안 좋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과연 이 씨 말대로 찌개 거품은 몸에 해로운 것일까?

먼저 찌개에 거품이 생기는 이유부터 알아보자. 물은 100℃가 되면 기화돼 기포를 형성한다. 이는 찌개를 끓일 때도 마찬가지다. 찌개가 끓으면서 만들어진 기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거품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찌개 거품 속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 찌개 거품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이는 찌개가 가열되면서 흐물흐물해진 재료 즉, 두부, 고기 등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들이다. 이에 대해 차윤환(숭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교수는 "찌개에서 나오는 단백질은 소금물에 녹지 않는 종류인 프로라민과 글루텔린에 속한다. 그래서 용해되지 않고 기포와 함께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찌개를 먹던 윤 기자는 차 교수에게 배운

내용을 의기양양하게 이 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이 씨는 이에 질세라 "거품에 MSG(합성조미료)가 들어있을 수 있으니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 맞다"고 반론했다.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이에 관해 차 교수는 "MSG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오히려 거품에 섞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요리책에서 전문가들이 '거품을 걷어내라'고 자주 언급하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찌개 거품을 걷어내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차 교수에 따르면 "찌개 거품에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성분이 많아서 텁텁하게 느껴지는 것"이라며 "취향의 차이일 뿐 반드시 걷어낼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찌개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이물질'로 오해해 줄곧 걷어내던 이 씨. 그는 찌개 거품이 단백질이 함유된 영양가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찌개 거품을 걷어내던 숟가락을 내려놓게 됐다. 여러분은 어떤가. 찌개를 먹을 때마다 거품을 걷어내는 습관, 이제 거둬도 되지 않을까?

윤희승 기자

yooning@gmail.com



한성대신문사

@hansungpresscenter

한성대신문

<http://blog.naver.com/hansungnews>

한성대신문

@hansungnews

의화정

〈사고와 표현〉을 담당하고 있어서인지 학생들이 좋은 책 고르는 법을 묻곤 한다. 책을 고르는 법을 고민하다가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모두 친구가 되지 못하듯 책 또한 그렇다.

나 역시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몇 권의 책들이 나의 책이 되었을 뿐이다. 그 책들은 재미와 의미가 각각 달랐다. 심심할 때 놓고 싶은 친구가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났음에도 해소되지 않았던 헛헛함에 한잔 하고 싶은 친구가 있고, 비밀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하는 친구가 있듯이 나에게 책은 장난감이고, 술친구이고 내밀한 삶을 공유한

친구였다.

어린 시절 내 고향 시골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위아래 서너 살까지는 성별을 불문하고 친구를 먹었다. 책 또한 그랬다. 입을 게 많지 않아서 동일한 책을 심심할 때도 읽었고, 엄마에게 야단맞은 후 속상할 때도 읽었다. 그리고 오빠의 책을 몰래 읽기도 했다. 고등학생 오빠의 숨겨둔 여인 『차타레 부인』을 초등학교 때 몰래 만나곤 했던 기억도 있다.

그러면서 알아갔다. 나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를. 중3, '돈'의 위력 앞에 무력해진 꿈을 마음 속 깊이 감춘 채 황량한 들판을 걸을 때 묵묵히 걸어 준 히드클리프, 대상 없는 설렘에 대답해준 수많은 연애소설의

주인공들, 내 안의 다양한 목소리에 당황스러워하던 나에게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위로해 준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두려움을 감추고 방어적이던 나를 질책했던 스트릭랜드, 그들은 이제 내 정체성의 일부이기도 하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듯 좋은 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좋은 친구가 삶의 든든한 지원자이듯 책은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긴긴 체험을 통해 내린 대답은 이렇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하듯 책을 자주 접해야 한다고, 그래야 나에게 좋은 책을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고.

나은미(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교수

책과 사귀기

· 삼 학 송 ·

껍데기는 가라

장수풍뎡이, 사슴벌레와 같은 탈피동물은 몸이 성장해 감에 따라 자신의 껍데기를 벗는다. 잠잠 몇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매우 고되다. 심지어 탈피 중간에 여력이 다해 그대로 죽는 경우도 왕왕 있을 정도다. 또 탈피를 무사히 완료했다더라도, 새 껍데기가 단단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탈피'는 이들에게 주어진 가혹한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보사'라는 집단도 정기적으로 '탈피'를 하게 된다. 바로 학보사의 우두머리인 '편집국장'이 바뀌는 때다. 편집국장은 학보사 내에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편집국장이 교체되는 시기는 '탈피' 과정에 비유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편집국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신문의 논조, 기사의 주제, 대외적인 활동 등이 결정된다. 어떤 지면에 어떤 기사를 실을지, 페이스북 페이지에 어떤 종류의 콘텐츠를 게시할지 등의 제반사항이 편집국장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상당히 고될 수밖에 없다. 좋은 멤버와 좋은 리더는 엄연히 다르듯이, 신입 편집국장은 이전까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업무적 도전을 받게 된다. 사내 분위기, 기자들과의 관계, 업무 강도, 취재 현황, 행사 진행..... 개인의 업무만을 책임졌던 생활과 편집국장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때문에 학보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고, 신입

편집국장이 완벽한 리더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진통이 수반된다.

우리 〈한성대신문〉도 이번 학기 종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탈피'를 시작한다. 현재 실질적인 권한은 대부분 차기 편집국장에게 넘어간 상태이고, 현역 편집국장은 직함만 유지하고 있을 뿐 이미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임기 만료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임기 만료와 동시에 껍데기는 벗겨질 것이고, 여린 새 껍데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학보사에게도 '탈피'는 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과정이다. 시대의 조류는 흐르기 마련이고, 낡은 시대의 선장은 모험보다는 안주를 선택하기 쉽다. 특히 종이신문이 저물고 멀티미디어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서, 단순히 기존의 방식만을 답습하는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과 생각을 가진 선장이 필요한 것이다.

어쨌거나,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껍데기는 떠나야 한다. 비록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어떤 때에는 한없이 버거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나면 새 껍데기는 단단해질 것이고, 학보사와 구성원들은 마침내 성장하게 된다.

지금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른 나는, 새로운 편집국장을 맞이하는 우리 학보사의 건투를 빌며 떠난다. 일찍이 한 시인이 적어두었던,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주형 편집국장

기자수첩

2막 1장에서 발걸음을 떼며

부푼 꿈을 안고 학보사에 입사한 지 어느덧 1년하고도 3개월이 흘렀다. 처음 학보사에 지원한 것은 순전히 고등학생 시절, 드라마에서 본 학보사의 모습 때문이었다. 독립된 개인 공간이 있는 사무실, 애플 컴퓨터 앞 아기자기하게 꾸민 책상, 회의실에서 빔프로젝터로 회의하는 모습, 훈훈한 편집국장 선배, 친대대같은 입사 동기... 이보다 완벽한 근무환경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에 비하면 입사 후 내가 겪은 학보사는 이상을 넘어선 '현실' 그 자체였다.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일수록 기사를 써내내는 기체가 된 듯, 소모되는 느낌을 받았다. 수습기자 때의 설렘과 떨림은 이미 없고

그저 마감일에 쫓겨 며칠씩 밤을 새우는 쳄바퀴 속 다람쥐가 돼버렸다. 지난 2월 말, 새내기호와 개강호를 동시 작업하면서는 5일 동안 총 10시간도 되지 못해 알아늑기도 했다. 컴퓨터를 오래 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목과 어깨, 손목 통증을 자주 겪었고 불규칙한 수면패턴으로 불면증을 앓기도 했다.

퇴사를 고민할 만큼 호되게 슬럼프를 겪은 적도 있다.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했을 때였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우리학교 학생들은 의견 피력이 소극적인 편이다. 학생들이 학내 사안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안타까우면서도 속상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학교에 대한 비판을 일삼으면서,

막상 오프라인에서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초라할 정도로 참석률이 저조했다. 비워지지 않는 학보 배부함에서 지난 학보를 거둬야 할 때 느껴야 했던 씁쓸함도 한 몫 했다. '요즘 누가 신문을 본다고...', '학보사에 투입하는 자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게 낫겠다'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그 기사를 써낸 기자가 '나'라는 사실에 위축됐다.

다음 학기부터 나는 편집국장으로 승급된다. 마냥 먼 일이었을 적에는 오히려 자신에 찾지만, 지금은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래도 나를 따르는, 내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있어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로 한다.

강예림 기자 kkr_0728@hansung.ac.kr

낙산에 올라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듯이

학생 A는 너무나도 좋아하는 동기가 있었다. 꽃처럼 활짝 핀 그녀의 미소가 시도 때도 없이 떠올랐다. 그러나 소심한 그는 섣달 다가가지 못했다. 어느새 그녀의 옆에는 다른 남자가 생겼다. 같이 등교하는 둘을 볼 때면 사랑살랑 불어오는 봄바람이 A의 살을 파고 들었다.

학생 B는 한 눈에 반한 동기가 있었다. 그는 동기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개강 후 3주 만에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다가간 것이었을까. 가까에서 본 그녀는 생각과 다르게 그와 모든 것이 맞지 않았다. 결국 둘은 싸우기만을 반복하다가 갈라섰다. 헤어진 후 B가 얻은 것은 멋있게 흘러내리는 눈물 한 방울 뿐이었다.

바야흐로 캠퍼스 커플이 대화의 화두가

되는 시기가. 옆 친구가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한 이들은 가슴 속에 사랑을 싹 피운다. 한편 일찍이 시작한 관계를 정리하는 커플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 누구는 평생의 짝을 만났으며 행복해하지만, 누구는 A처럼 차가운 외로움에, B처럼 애인과의 갈등으로 생긴 상처에 고통 받는다. 그들은 행복해 보이는 커플들을 보며 '나는 왜 이런 추위/아픔을 겪어야 하나?'라는 비탄에 빠질 것이다. 왜 굳이 그런 고통까지 겪어야 하는가?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말 한 마디를 꺼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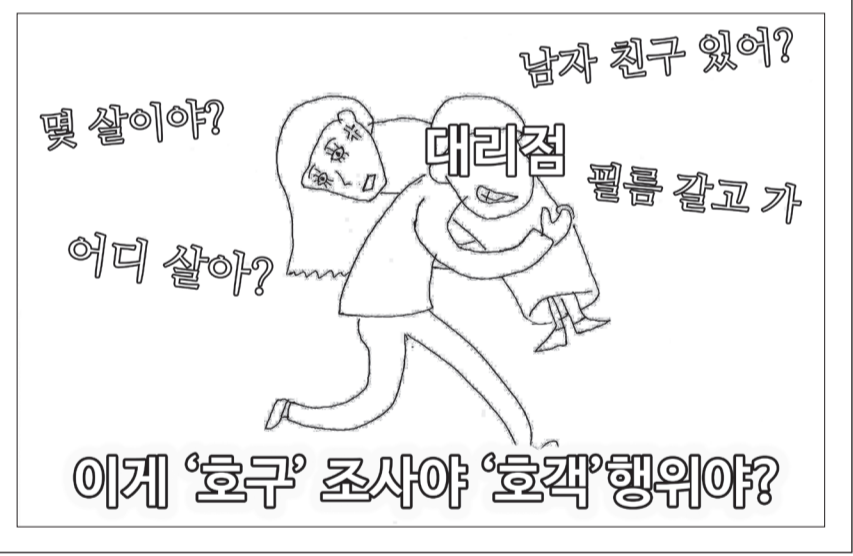
“떨어져 있을 때의 추위와 붙으면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우리는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김태호(한국어문 4)

무슨 의미일까. 이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가까움'과 '떨'을 경험해 봐야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난로에서 떨어졌을 때의 추위와 난로에 가까이 갔을 때의 화상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한 발 더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다. 추위를 느끼면 앞으로, 아픔을 얻으면 뒤로 이동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따뜻함과 안전을 동시에 얻는 거리에 서게 된다.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완벽한 거리를 찾기는 어렵다. 밀착과 떨어짐에서 오는 고통을 맞본 자만이 좋은 관계를 위한 최적의 거리도 찾을 수 있다. 한 번의 아픔으로 주저앉지 말자. 원인을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그 아픔은 당신을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낙산만평

김수현(인문 2)



한성대신문에서는 독자분들의 제보와 칼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hansungnews@gmail.com

열기 뽐뽐, 대동제의 문을 Knock Knock

이가연 기자 shell990824@naver.com 장선아 기자 suna0913@hansung.ac.kr 정수민 기자 sff1228@naver.com

Beer를 어서 비워!

술 향기에 이끌려 걸음을 옮기다 보니, 낙산공원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아쉽게 주최한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대회는 모자에 달린 빨대로 맥주 한 잔을 빨리 마시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남·녀 각각 3경기씩 치러졌으며, 각 경기의 승자에게는 동연이 운영하는 '장터'의 이용권을 수여했다. 또한 남성 승자에게는 메달을, 여성 승자에게는 왕관을 선사했다. 이날 행사에서 승리한 배수연(부티 1) 학생은 "너무나 즐거운 행사다. 맥주를 마셔서 배부르다"고 이야기하며 왕관을 고쳐 썼다.

Sing in the 낙산~♪

맥주모자와 테이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는 악기와 각종 음향기로 채워졌다. 버스킹 공연을 선보이기 위해서다. 버스킹에는 음악 동아리 '들불', '4호선마이크', '왕산악'과 국문과 소모임 '밴드패'가 참여했다.

이날 낙산공원에서는 복면가왕 예선도 열렸다. 12명의 학생이 가면을 쓰고 모습을 감춘 채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중 4명을 관객 투표로 선발했다.



대체 누가 그렇게 잘 된 건데?

선배들의 생생한 학교 프로그램 체험 후기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마련됐다. 축제 둘째 날 미래관 DL에서 프로그램 참여 학생 9인의 '역량성공사례 발표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일본 홋카이도교육대학교의 유학생 아비코 메이(언어교육원) 학생은 "한국에 온 지 3개월이 지났다. 한성대 교직원들, 학생들 덕분에 매일매일 아주 재밌는 생활을 하고 있다. 남은 유학생들도 잘 보내겠다"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오늘 밤 주인공은 왕산악! 왕산악!

상상마당에서는 한성대학교 방송국(HBS) 주최로 낙산가요제가 진행됐다. 대상 수상자가 호명되자, '왕산악' 팀이 포효했다. 그렇다! 그들이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보컬을 맡은 박소향(회화 2) 학생은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이날 낙산가요제 진행을 맡은 HBS 박중호(인문 2) 아나운서부장은 "낙산가요제는 학생들의 숨겨진 끼와 열정을 보여주는 축제다. 실수가 많았지만 잘 끝마칠 수 있어서 뿌듯하다"며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기부 앤 테이크

성북구 결손가정을 돕기 위해 개최된 바자회도 있었다.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져 부스에는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행사 수익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사회봉사단 'HUV'의 따뜻한 마음씨를 방문객들이 알아챈 듯했다. 직접 부스 운영에 참여한 조은비(사회과학 2) 학생은 "사실 오늘 행사에서 바자회 물건을 구매할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떤 분이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기부를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감동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왕왕왕재(왕 많으니까 왕 재밌다)

축제는 자고로 재미가 있어야 맛이다. 패션학부의 'EDM클럽'부터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의 '뷰티 케어 부스', 낙산극회의 '귀신의 집'까지..... 올해 대동제에는 이름만 들어도 왕 재미있는 체험 부스가 왕왕 마련됐다. 축제현장은 많은 학생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뷰티 케어 부스와 클럽에 방문한 서현석(사회과학 2) 학생은 "헤어드라이를 받았는데 지불한 돈이 아깝지 않게 잘 해줘서 좋았다. 사람들이 모두 술을 들고 있어서 연어먹을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다들 잘 놀아서 재미있었다"며 여운을 달렸다.



DAY 1

빨리빨리 마시자!

Music is my life

오~잠하는데~?

맘스터치를 Touch!

너, 맘스터치?

"징~"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낙산공원에 울려 퍼졌다. 동연이 주최한 맘스터치(맘스터치 최대 몇 개 먹니?) 행사가 시작된 것이다. 맘스터치는 햄버거 두 개를 누가 빨리 먹는지 겨루는 경기였는데, 참가자 중 햄버거를 다 먹은 참가자가 사회자에게 입 안을 보여주고 힘차게 징을 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3만 원 상당의 맘스터치 이용권, 간장게장 그리고 메달이 수여됐다. 행사는 일반 경기와 원어민 교수가 참여한 스페셜 경기로 나뉘어 진행됐다. 스페셜 경기에서 가장 먼저 징을 울린 사람은 Shaun Marsh(교양영어교육과정) 교수였다. 그는 "My stomach is hard. But I'm so happy!"라고 말하며 간장게장을 받을 주소를 써내려갔다.

행사를 기획한 고요찬(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 부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함께 어울릴 수 있게끔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한편, 동연은 축제 당일 맘스터치에서 햄버거 200개, 학교에서 FITZ 맥주 50병을 후원 받아 학생들에게 증정했다.



DAY 2

밤~샘 학교 프로그램

나 왕산악 좋아하냐

음악에 몸을 맡겨

Bring me 10cm!!

비트 주세요, Drop the BEAT!

우리는 몸을 들쭉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잠재된 흥을 자극한 교내 흑인음악 동아리 'TRIAx'와 댄스 동아리 'NOD' 덕분이다. NOD 부원인 김승환(경제 3) 학생은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준비 기간에 중간고사까지 있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후배들이 잘 따라와 줘 공연을 잘 끝마칠 수 있었다. 선배, 동기, 후배 모두 땀 흘리며 노력한 덕분"이라며 부원 모두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경품 추첨에서는 송현진(ICT 1) 학생이 '에어팟'에 당첨되었다. 그는 "살면서 한번도 경품에 당첨된 적이 없는데 당첨스럽다"며 기쁘보다는 멧쩍은 기색을 보이며 종종 걸음으로 퇴장했다.

여어~ 내 심장 히사시부리~

축제 둘째 날의 피날레를 장식한 것은 가수 윤판판과 10cm의 공연이었다. 먼저 무대에 오른 윤판판은 옛 여자친구를 그리며 작곡한 곡들을 부르며 술한 여성의 심장을 '뭉'하게 했다. 이어진 10cm의 공연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마지막 곡인 〈Fine Thank You And You?〉를 부르던 중 무대 아래로 내려와 관객들의 폐창을 유도했다는 점이다. 10cm 바로 앞 펜스에 있던 학우들의 심장이 잘 뛰고 있는지 궁금해진 순간이었다.



DAY 3

다들 좋아했던 그 현장속으로

술이 없지, 흥이 없냐?

밤샘의 복면가왕은 누구?

지아코~레초기락!

형이 거기서 왜 나와?

25일에는 축제 첫째 날 치러진 '복면가왕' 예선전을 통과한 4명의 학생이 각각 준결승과 결승을 치렀다. 학생들의 수준급 노래 실력에 관중은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결승전에서는 '쿨 가이 데드폴'과 '복 빼면 시체가 박빙의 대결을 펼쳐 결과를 더욱더 궁금하게 만들었다. 우승은 박진영의 〈Swing baby〉를 열창한 '쿨 가이 데드폴, 조수아(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1) 학생이 거머쥐었다. 그는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저에게 '복면가왕' 대회는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다. 멋진 무대와 좋은 상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HIPHOP~ 대동제

대동제의 마지막 무대는 가수 거미와 지코가 장식했다. 당일 오전부터 축하공연을 보기 위해 자리를 지킨 팬들로 공연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수 거미는 발라드뿐만 아니라 힙합 곡인 〈Red Sun〉을 무리 없이 소화하면서 축제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다. 가수 지코는 DJ와 함께 본인의 히트 곡을 라이브 메들리로 선보였다. 지코가 선보인 짧은 춤도 공연의 묘미였다. 상상마당을 가득 채운 인파는 두 가수의 무대에 엄청난 폐창으로 화답했다. 쌀쌀한 밤 공기에도 현장에 있던 학생들의 뜨거운 열기를 이기지 못했다.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



오는 6월 13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6일, 21일 양일간 <중대신문>이 주관하고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참여한 '대학생, 서울시장 후보에게 묻다' 행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 후보와 대학언론 기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성대신문>도 이에 참여해, 16일에는 연세대학교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를 만났고, 21일에는 서대문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를, 경희대학교에서 정의당 김종민 후보를 각각 만나볼 수 있었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박원순

- 現 서울특별시장
- 前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 前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졸업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2011년부터 7년간 서울시장을 맡은 '행정 베테랑'이다.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한때 '시민운동의 상징'이기도 했던 박 후보는,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강력한 경쟁 상대였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정치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그는 '서울도시재생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의 정책을 펼쳐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다. 그는 현재 지지율이 50%를 넘는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다.

Q.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해결 방안이 있는가?

A.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 때부터 이미 기후환경본부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려 많이 노력했지만, 기후 변화와 같은 요인

때문에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시장 재직 당시, 본인은 공유자전거 '따릉이' 2만 대 배치, 신촌 '대중교통 전용 지구' 등 각종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자동차등급제를 추진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차의 운행에 제한할 생각이다.

Q. 후보가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A. 오히려 도시재개발과 같은 과거 '토건행정'이 전시행정이다. 반면 '도시재생'은 시민들의 필요에 맞게 지역을 재생한다는 의미에서 전시행정과 거리가 멀다. 토건행정과 같이 결과가 눈에 보이는 정책을 시행하여 본인의 명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은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자리지, 시장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다.

Q.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 있다면?

A. 일자리 대책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는 R&D(연구 개발)·스타트업 투자, 핀테크(FinTech)와 같은 신생분야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0억 원 규모의 청년비전기금을 조성해 청년들의 직업 탐색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Q.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심해지고 있다.

A. 서울시가 시유지에 '희망하우징' 주택을 공급했지만,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시장에 당선된다면 이미 개발된 역세권에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허가할 생각이 다. 이를 통해 증축된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땅주인으로부터 기여받아, '청년역세권주택'이란 이름으로 공급할 것이다. 또한, 4년 동안 공공주택 24만 호를 짓고, 이를 청년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Q. 기존의 여성정책을 어떻게 보며,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A. 그동안 서울시는 시청 내에 성평등위원회, 젠더정책팀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여성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등 여성 인권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여성차별, 여성범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드유(#With U) 센터를 설립해 여성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 내에 남녀 분리 화장실을 만들면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1970년대 서울대 재학 당시 운동권의 아이콘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공산주의의 고향'인 소련 붕괴를 목도하면서 우파 진영으로 전향했다. 이후 그는 1996년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를 시작으로 16대·17대 국회의원을, 2006년·2010년에는 경기도지사를 지내 한때 차기 대선 주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총선에서 낙마하는 등 정치적 슬럼프를 겪었다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Q. 미세먼지 농도를 30%가량 줄이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 달라.

A. 우선 미세먼지 측정기의 높이를 낮추고, 측정기를 서울시청 앞과

지하철역에 증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도로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산후조리원, 노인복지관, 취약계층이 사는 가구 등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지급할 것이다. 또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청 앞 광장과 광화문광장에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있는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Q. 청년 실업에 대한 본인의 대책이 있다면?

A. 우선 대학가를 재개발함으로써 '스마트캠퍼스타운'을 조성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대·경희대 사이에 위치한 홍릉 일대에는 한국경제개발원(KDI), 국방과학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캠퍼스타운'에는 기업 연구소, 세계적인 연구소 등을 유치해, 인공 지능, 제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 공간을 마련해 청년들의 창업 활동도 지원할 것이다. 이밖에 해외 취업 알선 등의 노력도 기울일 생각이다.

Q. 교통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계획은?

A.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 지하차도를 추가로 건설할 것이다. 이로써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체증을 완화할 것이다. 또, 현재 지하철 9호선 차량은 4~6량 정도로 운행되고 있는데, 이를 8량으로 늘릴 것이다. 아울러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지하 50m에 개설해 시속 200km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를 운영할 것이다. 현재 GTX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상태다.

Q. 생각해둔 여성 복지 정책이 있는가?

A. 경기도지사였을 때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다. 우선,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출산을 장려했다. 또,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해 야간 근무하는 여성들이 근무 시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했다. 시장에 당선된다면 이와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Q. 박원순 후보의 '35층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A. 박원순 당시 시장이 한강변에 아파트를 35층까지만 짓게끔 규제한 것은 소위 '갑질'이다. 법률이나 시행령, 조례 등을 찾아봐도 규제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요즘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건축 자재도 좋아져 고층 빌딩을 안전하게 세울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본인은 35층 규제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 특성에 맞게 높이 규제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문수

- 前 민선 제4기·5기 경기도지사
- 前 제15~17대 국회의원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Q. 미세먼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A. 먼저 차와 미세먼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따라서 본인은 서울 도심에서의 승용차 이용을 막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버스노선 공영제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물론 자영업자의 경우 특정 시간에 자동차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지만, 그 외의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거액의 '혼잡통행세'를 징수할 생각이다.

Q. '프리랜서 노동조합(이하 프리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A.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으려면, 노조를 결성해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대기업은 노조 설립을 저지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만들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프리 노조 설립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프리 노조 설립이 성공한다면, 다른 노동자들이 희망을 품고 연이어 노조를 만드는 '노조 낙수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청년사회상속제'의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궁금하다.

A. '청년사회상속제'는 상속세 재원에서 일정 금액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만일 이를 운영하게 되면 재원 확보가 문제인데, 도로 건설을 줄이고 3조가량의 서울시장 재량 예산을 쓰면 해결된다. 상속세는 청년을 사회가 책임지는 제도이므로, 보편 복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수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종민

- 現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 前 정의당 대변인
-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졸업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한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이번 선거에서 현장에서부터 기쁜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포부를 다지고 있다. 또한, 그는 2011년 당시 박원순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과 정의당 대변인 역할을 하는 등 나름 굵직한 정치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서울을 노동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다고 밝혔다.

Q. 다른 후보들과 차별된 점이 있다면?

A. 현장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이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2002년에 재개발 세입자들의 투쟁을 지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비록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이 경험은 본인의 정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2011년에는 박원순 당시 시장과 해고노동자 복지, 노동복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파업노동자들을 만났다.

Q. 후보의 공약 중 '인권친화기업 인증제'가 눈에 띈다.

A. '인권친화기업인증제'는 성소수자,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가 노동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했다. 이 제도에 따라 기업을 평가할 때는 노동조합 유무, 채용자 성비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통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가 업체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것이다. 이밖에 여성이나 성소수자에게 혐오 발언을 하는 기업주의 경우, 시정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것이다.

다! 캣스 삼총사 '놀'거리-'먹'거리-'볼'거리

바다도 아닌 것이
육지도 아닌 것이, 보령 '갯벌'



계절학기 수강, 아르바이트 등 스케줄이 있어 여행에 오랜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수도권과 가까운 서해안 지역을 찾아가 보자. 흔히 '서해 바다'라고 하면 유명한 에메랄드 빛이 아닌, 탁하고 빛바랜 바닷물이 떠오르기 십상이다. 하지만 서해안에도 내세를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 바로 '갯벌'이다.

그중에서도 충청남도 보령시는 예부터 마드(진흙)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갯벌의 고장이다. 1998년부터 매년

있으므로 긴소매 옷을 입는 것이 좋고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적절히 대비해야 한다.

정체가 준비됐다고 해서 바로 갯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안전한 체험을 위해 민물과 쉼물 시간을 알아 봐야 한다. 이는 국립해양조사원(<http://www.khoo.go.kr/>)의 '스마트 조석예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석예보에 표기된 저조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이전부터 1시간 이후까지가 체험하기 좋은 시간이다.

장비도 갖추고, 물 때 시간까지 숙지했다면 이제 갯벌 체험에 들어갈 차례다. 서해안 갯벌은 다양한 종의 생물을 잉태한, 그야말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특히, 보령에서는 ▲바지락 ▲동죽 ▲맛조개 ▲개불 등을 채취할 수 있다. 군현갯벌체험학습장 어촌계장은 "이곳은 대형 해수욕장 인근 청정 갯벌이라 바지락이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직접 바지락을 채취한 김 기자는 "갯벌에서 '파이웨이'는 통하지 않는다. 괜히 욕심내서 혼자 외딴 데 파헤치기 말고, 사람 많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집중 공략하라"며 '갯벌체험 꿀팁'을 전수했다.

맛의 방주, 순천을 가다

어느 식당에 가도 음식이 푸짐하고 맛있게 유명한 전라도. 그중에서도 특히 순천은 전라남도 동부권의 교통 중심지여서 '맛집'이 많기로 정평이 나갔는 지역이다. 갯김치, 들깨장, 고들빼기과 같은 순천의 많고 많은 음식 중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꼬막'과 '짬뽕'이다.

많은 사람이 꼬막을 별교만의 특산물로 알고 있는데, 순천 역시 별교 못지않은 꼬막 특산지다. 순천만 연안은 국내에서

풍기는 꼬막과 새콤한 매실청이 조화를 이뤄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별교로 제공되는 큰 그릇에 하루집을 넣고 밥을 비벼 먹으면 그 맛이 배가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쉼물 때면 순천만습지에는 광활한 갯벌이 펼쳐진다. 바로 이곳에 짬뽕이 살고 있다. 짬뽕어는 메기와 닮은 두 바퀴생김새와 달리 무척 영리해서 그물망도 속속 피해 다닌다. 그래서 솜씨 좋은 낚시꾼들이 여러 개의 갈고리를 달아 고기를 휘휘 저어서 낚는 윗치기 낚시를

해오던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다. 갯벌이 조금만 오염돼도 살지 못하는 데다 양식도 어려워 다른 지역에서는 못보기가 어려운 식재료가 바로 짬뽕어다.

이렇듯 귀한 짬뽕어를 순천에서는 탐으로 즐겨 먹었다. 옛날부터 순천에서는 추위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인지 순천에서는 추어탕과 비슷하면서도 페기탕 맛이 나는 짬뽕어탕을 맛볼 수 있다. 꼬막과 짬뽕어에 대해 이만큼 파악했다면 이제 먹어볼 차례! 지금 당장 기차에 몸을 싣고 남도로, 순천으로 맛기행을 떠나보자.

<편집자주>

기말고사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중강이 가까워져 온다는 사실에 마음이 붕 뜨기 쉽다. 어차피 열람실에 앉아있어도 꾸벅꾸벅 졸고만 있을 거라면, 차라리 시험공부는 과감하게 접어두고 머리도 식힐 겸 울머를 휴가 계획을 미리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김 기자와 강 기자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직접 취재했다. 각 해안에서 놀고, 먹고, 볼 만한 것들을 추천한다.



#산해_놀거리_보령_갯벌에서



#산해_놀이_망태기_성공적



#카메라로_촬영한_김_기자

몽돌 해변부터 대나무숲까지, '울산' 12경

동해안 여행지로 많은 사람들이 강릉이나 속초와 같은 강원도 지역을 주로 찾는다. 하지만 '동해 바다'는 '강원도라'는, 일종의 공식처럼 굳어진 클리셰가 되곤 하지만 그보다 남쪽에 위치한 울산광역시에서 가볼 만한 것을 추천한다. 울산은 광역시급에 대도시적인 면모와 해안 지역의 아름다움을 두루 갖추고 있어, 편리한 교통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며 동해 바다를 만끽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울산시는 대표적인 절경 12곳을 '울산 12경'으로 지정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중 제7경 지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전몽돌해변'에서는 무더운 여름을 더파할 수 있는 시원한 파도소리를 들을 수 있다. 주전몽돌해변은 일반적인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는 모래사장과는 달리 동글동글한 자갈인 '몽돌'이 깔린 해변이다. 까만 자갈밭과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룬다. 오랜 시간 파도에 부딪히며 더욱 단단해지고 동글동글해진 몽돌은 파도가 대너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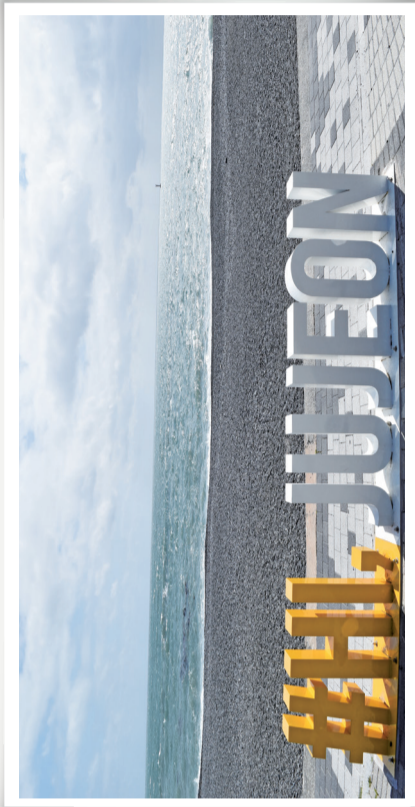
난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특히, 이곳은 '바다를 듣는다'는 표현이 제격일 정도로 시원한 파도소리가 일품이다. 울산 동구가 '주전해변 몽돌 파도소리'를 '울산 동구 소리 9경' 중 제 9경으로 지정했을 정도다.

울산 제2경인 대왕암공원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일출을 볼 수 있는 장소인 '대왕암'이 위치하고 있다. 대왕암은 용이 승천하다 떨어졌다고 해서 '용추암'

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도 있다. 산리시대 문무왕의 뒤를 이어 세상을 떠난 문무대왕비가 남편처럼 동해의 '호국룡(護國龍)'이 되자 이 바위 아래로 잠잠했다는 것이다.

바다는 지경고 더위는 피하고 싶다면 울산 제1경 '심리대숲'에 가보는 것은 어떨까. 심리대숲은 울산의 대표적인 생태공원 '태화강대공원' 내부에 조성된 대나무숲이다. 심리대숲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태화강을 따라 심리(4km)에 걸쳐 펼쳐져 있다. 울산의 '하파'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에는 여름마다 많은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고자 찾아온다. 대나무가 강가에 이로운 음이온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산림욕을 즐기러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부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 신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온 대나무, 바람에 꺾일 듯 꺾이지 않으며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는 대나무를 보고 있으면, 당신도 그 매력 을 새삼 실감하게 될 것이다.

한편, 울산시청 김현(환경정책과) 주무관은 "월 말까지는 죽순이 돌아오는 시기다. 죽순은 대숲을 지키는 생명과도 같다. 그런데 일부 시민 및 관광객이 약이나 식용으로 몰래 절라가서 죽순이 다 사라지 못하고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의 명소인 태화강 심리대숲을 보존하기 위해 죽순을 아끼고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바다_놀이_지점_보령_갯벌에서



#6월_바다_놀이_없는_대왕암



#많은_관_가나_귀